

자가 무역항 등 주요항에 집중되고,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흡한 어항구역에 대한 투자는 어획물의 신속 처리와 어선의 안전대피 및 정박 등 어민생계와 재산보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소형선박의 안전 정박에 필요한 항내 정온유지와 어획물의 보관 및 어구 손질 등을 위한 충분한 배면부지 조성도 요원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 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잖아도 어민이 갖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적잖은데 어항구역 시설투자의 확연한 차이는 각종 수산시책에 대한 불신의 골을 한층 깊게 만들어 어촌을 떠나는 어민의 숫자를 더욱 늘릴 것이며, 3면이 바다라는 보기 드문 좋은 조건을 갖추고서도 수산대국을 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편 어항구역을 항만청이 관리함으로써 오는 불편함은 어항의 기능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어항내에 낚시터, 해수욕장, 관광공원 등 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어촌경제의 다변화를 꾀하고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어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산관련 주무부처가 어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항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현실에 쉽고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 이용자 의견

# 대천항 완공 어민 우선 이용토록 어선어업 위축 위기감

趙孝根 <대천시수협 조합장>

**대**천수협 관내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천항은 해운항만청 소관 항만으로 연안항이다. 연안항은 잘 알고 있다시피 항만건설은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고, 항만운영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대천항은 어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항만 규모가 작은데다 별도의 어항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어선과 화물선이 교대로 항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획물 양륙처리에 많은 지장

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천수협 관내는 서해안의 특성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어선어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가뜰이나 이런 외적 조건이 열악한데다 이용할 수 있는 어항마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어 어선어업을 한층 더 위축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천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240여m의 물양장 가운데 실제로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내 물양장의 길이는 불과 150m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항 주변에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항내 좌·우측에 선박을 정박시킬 수밖에 없어 성어기에는 대형선박 1척이나 소형선박 3~4척이 접안하면 다른 선박들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획물 양륙을 비롯한 어상자, 각종 선수품, 생활물자, 선박자재 등은 어쩔 수 없이 물양장내에서 선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성어기에는 이런 협소한 접안시설로 인하여 어획물의 양륙이 지연됨으로써 어획물의 선도가 저하되어 어민소득의 감소 원인이 되고 있음은 어민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양장이 협소하다보니 어선의 입출항시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되고 있어 항상 불안속에서 조업에 임해야 하며, 이의 여파로 항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업시간이 단축되어 어민소득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대천수협은 이런 점을 감안하고 지원 어민과 외래어선의 이용을 고려해 물양장의 3분의1 가량은 수협에서 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 있었다.

왜냐하면 연안항이라서 정확히 어항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까닭에 이용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이것이 수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번번히 수협의 사용승인신청이 좌절되고 있어 대천항을 찾는 외래어선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나름대로 대천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천항 개발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천항을 충남 중부 일원의 어업중심 기지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항만기능 유지를 도모하며, 접안시설의 용도별 기능 부여로 항만시설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또한 어민의 소득증대가 인근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륙부두와 항만관련사업 유치에 필요한 항만부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89년부터 '94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9억원을 투자해 물양장 595m, 북방파제 600m를 축조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는 '94년말에는 항내 정온수역이 15㎡로 증대되고 하역능력도 20만 3,000톤으로 증가되고 어민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94년 완공예정이었던 대천항은 우여곡절끝에 완공시기가 '97년으로 연기된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공기를 단축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완공 예정연도까지 만이라도 준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현재 사용중인 여객선 및 관선 접안용 부잔교를 시급히 옮겨 어선 이용에 불편함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대천항을 바라보는 어민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항만시설을 어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더이상 곤란을 겪지 않아

야 된다는 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어선과 어민들에게 상당 부분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기 전에는 어민들은 대천항을 자신들의 전속 이용어항으로 알고 있었다.

단지 편의상 일반 화물이 함께 이용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관할이 생기고 관리의 주체가 생기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것은 수산청이 아닌 해양항만청이 대천항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게다가 다른 수협은 어항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천수협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더욱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선을 위주로 모든 항이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어선과 화물선이 뒤엉켜 뒤죽박죽인 것이 도무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민의 입장에서는 관리나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민이 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수협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대천항이 날이 갈수록 어항의 역할이 약해짐에 따라 이로 인하여 관내 수산업이 취약해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좀더 어항에 역점이 두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우선 계획기간내에 대천항을 완공시키는 것과, 기왕에 항 개발을 할 바엔 대천항의 장래성을 고려해 어항구역까지 염두에 둔 그런 항으로 만드는 해안을 요청하고 싶다.

어쩌면 단순한 듯 싶지만 어항과 일반항은 기능상 엄연히 구별돼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 이용자 의견

# 어민실정에 맞는 관리로 늘 손해 어항구역만이라도 설정

高永佛 <나로도수협 조합장>

나로도항(축정항)은 해운항만청 소관 항만으로 연안항이다. 나로도항의 규모는 물양장 512m, 방파제 250m, 하역능력 10만 3,000톤으로 다른 연안항에 비해서

는 다소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나로도항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생계수단이 대체로 수산업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나로도항의 특성 역시 어선의 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항으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하려고 하니 하루가 다르게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쇠퇴해가고 일반항으로 점점 변색돼 가는 느